

지하철역 어르신 쉼터 관리 부실... '찜통' 전략

금남로 4가·농성역 등 30도 넘어... "너무 덥다" 불만 광주시·도시철도공사 폭염 대책은 뒷전 예산 타령만

광주지역 노인들이 폭염을 피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주 찾는 '무더위 쉼터'가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찜통 쉼터'로 전략해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노인들이 자주 찾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대부분이 30도 이상을 기록했다.

오후 2시께 광주에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금남로 지하상가 내 '만남의 광장'과 도시철도 금남로 4가역 내 무더위 쉼터를 찾아 온도를 측정해 결과,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기준으로 각각 30.6도와 30.7도를 기록했다. 이날 광주의 최고기온은 34.4도를 기록했다. 이날 두 장소에 머물면서 바둑이나 장기 등을 두고 있는 노인들은 100명이 훌쩍 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남로 지하상가 내 상가 밀집지역은 28도 안팎이었다.

문화행사 자주 열리는 도시철도 농성역과 공영장이 있는 상무역, 그리고 지하철 종착역인 평동역 등 노인들이 더위를 피해 많이 모이는 나머지 역들도 덥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후 2~3시 사이 농성역은 30.2도, 상무역은 30.5도, 평동역은 32.1도에 달했다.

평동역에서 만난 박장수(78)씨는 "집에 있으니 너무 더워 무료 지하철을 타고 좀 접근 평동역까지 왔는데, 더워도 너무 덥

다"면서 "금남로 4가역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은 대부분 다른 곳보다 더 덥다"며 연신 부채를 흔들었다.

금남로 4가역에서 장기를 두던 안규식(69)씨는 "우리를 사이에선 노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일부러 냉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루머까지 떠돌 정도로 폭발 직전"이라면서 "불과 몇십미터 떨어진 지하상가만 가도 시원한 데,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지하철역을 덥게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들 무더위 쉼터에는 더운 바람을 내뿜는 선풍기들만 연신 돌아갈 뿐, 시원함을 느낄 만한 냉방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노래공연이 열린 농성역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냉방도 되지 않는 곳에 어르신들 200여 명이 모여들면서 체감온도는 35도에 육박했다. 노인들 상당수는 부채를 부치고 있었으며, 대부분 땀을 흘린 탓에 가까이 다가가면 쿨쿨한 냄새마저 풍겨 왔다.

올해에는 광주시민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쉼터' 추가 확충 등 선제적 조치를 들고 나온 광주시의 폭염대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금남로 지하상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민호(48)씨는 "무더위를 피해 지하로



지난 3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역에 있는 무더위 쉼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30도가 넘는 더위를 참으며 장기와 바둑 등을 두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내려오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너무 더운 날에는 땀 냄새가 지하상가까지 밀려 들어 올 때도 있다"면서 "어르신들을 위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 한달만이라도 냉방기를 특별 운영하는 등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 등 자치단체들과 도시철도 공사 관계자들은 예산 타령만 늘어놓은 채 노인들의 폭염 피해 대책은 뒷전이다. 광주시 지하도상가 관리사무소 관계자

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출입구가 물려있는 곳으로, 외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특히 지하상가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돼 에어컨이나 유리문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으로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도시철도 19곳의 역사 중 11곳 역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28도를 기준(전동차는 26도)으로 종합관제실에서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28도를 초과할 때 냉방을 실시한다"면서 "다만 모니터링 장소에 따라 온도는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한달동안 광주의 폭염 일수는 21일·열대야 일수는 14일로 온열 질환자만 118명이 발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온라인 의료광고 절반이 허위·과장 여름방학 점검 278곳 적발

온라인 의료광고 중 절반이 허위·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1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앱 2곳과 소셜커머스 2곳에 게재된 성형·미용 진료 분야 의료광고 2402건을 대상으로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법상 의료공고를 집중적으로 점검, 의료법 위반 사례 1059건(44.1%)을 적발했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앱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 602건 중 196건(32.6%)의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주요(메인) 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형식이다. 또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가 적발됐다.

시술·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거나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도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클럽 붕괴사고 전 대표·건물주 추가 입건

특혜 조례 의혹 전 서구의원 참고인 신분 불러 조사 광주경찰 인력 70명 투입 불법 증축 등 전방위 수사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무지구 '코오 테 어글리' 클럽 붕괴 사고(광주일보 2019년 7월29일자 10면)와 관련해 2명이 추가로 경찰에 입건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클럽 공동대표 3명, 클럽 직원 2명, 전 건물주, 전 클럽 대표, 용접 시공업자 등 총 8명으로 늘어났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31일 전 클럽대표 A씨와 전 건물주 B씨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붕괴한 불법 구조물을 직접 증축했으며, B씨는 이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클럽 대표와 함께 불법 증축 공사를 담당한 클럽 회계직원과 무자격 시공업자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날 '썸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 서구의원 C씨를 참고

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클럽과의 특혜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지난해 9월 해당 클럽 시설물 안전검사 결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진단업체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정현 광주지방경찰청장도 수사팀을 70명으로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장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방청의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클럽 붕괴사고의 원인, 불법 증축, 허술한 안전점검을 비롯한 서구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조례제정 특혜의혹, 마약·조폭 연루, 경찰유착 의혹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서구 공무원들은 해당 클럽 대표가 불법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직후인 지난 2015년 8월27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지만 구비 서류 여부만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한 달 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는 사실 점검에서도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혜조례 의혹을 받고 있는 서구의원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구의원은 클럽 붕괴 사고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건축물 점검에 대한 실제 파악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특혜조례 수정·폐지에 따른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30일 클럽 유사시설 35곳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에 나서 19곳을 적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음주 단속 걸러 30분 뒤 측정 운전 당시 기준 초과 단정 못해” 법원, 0.056% 나온 50대 무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어섰더라도 운전 종료 30분 뒤 측정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현숙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개정 전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밤 9시 35분께 술을 마시고 대전 유성구 도로 약 20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약 33분 뒤인 밤 10시 10분께 실시한 호흡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5%를 살짝 넘긴 0.056%였다.

"이해할 수 없다"는 A 씨의 요구에 오후 10시 40분께 혈액 채취로 측정된 수치는 0.073%로 더 높게 나왔다.

수사 기관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6%로 측정됐지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조건만남 성매수남 협박 금품 뜯은 10대들

광주북부경찰, 8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31일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남성을 유인,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17)군 등 10대 8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일당은 이날 새벽 6시께 광주시 북구 누문동 한 모텔에서 B(35)씨를 집단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군 일당(미성년자 남성 4명·여성 4명)중 여성 한명이 체당 어플을 통해 B씨를 모텔로 유인했고, B씨가 모텔에 들어온 지 10분 후에 방안으로 들어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유류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성매매 혐의 여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튜브 타고 물놀이 하다 먼바다로 떠밀려간 가족 해경이 구조

○·해수욕장에서 고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 조류에 떠밀린 초등생 두 딸과 이들을 구하려던 아버지까지 먼바다로 떠밀려간 것을 해경이 구조.

○·지난 31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여주시 남면 안도 백금포 해수욕장에서 오리 모형 고무튜브를 타고 놀던 A(11)양과 동생(9)이 바람과 조류에 먼 바다로 떠내려갔고, 자매를 구하려 고무튜브를 붙잡았던 A양 아

비자와 해수욕장 관리자 2명마저 조류를 이기지 못하고 해수욕장 앞 1000m 지점까지 떠밀려갔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는 것.

○·해경 조사 결과 A양 아버지가 오리 보트의 줄을 놓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어린이가 고무 튜브를 이용,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혀 만일의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